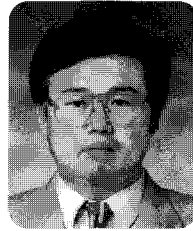


배합사료 · OEM 사료 · 자가배합 사료 이용시 장단점 분석



채 병 조 교수

강원대학교 동물자원학부

1. 머리말

요즘 OEM 사료의 양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그 이유는 일단 가격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OEM 사료가 가격면에서 유리한 만큼 품질면에서도 불리하지 않은지 대부분의 양돈 농가는 잘 모르고 있다.

가격측면에서 일반사료와 OEM 사료를 비교해 보면 OEM 주체가 이윤을 얼마나 취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사료공장에 부담하는 제조비가 싸기 때문에 사료가격도 저렴할 수 밖에 없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사료공장에 배합비율 표만 넘겨주고 사료를 생산해 온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다.

사료생산은 원료의 구입, 입고시 품질검사, 제조공정상에서의 표준화된 점검 등에 의해 합격된 제품이 출고된다. OEM 사료는 제조공장의 관행에 의해 생산된다고는 하지만 사료 공장 직원이 볼 때는 남의 사료로 인식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생산에 대한 책임감이 결여되어 자칫 불량사료가 출고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자가배합사료는 남의 나라 일로만 치부되어 왔으나 근래 자가배합을 하는 농장도 제법 있다.

외국에서 곡물농사를 직접 해서 얻은 곡물에다 부족된 원료를 구입해서 배합하여 급여하는 것이 자가배합사료의 원래 의도이지만, 곡물농사를 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경우 농장에서도 자가배합이 가능한 것은 농림부가 파쇄한 옥수수를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후부터 가능해졌다.

아직까지 활성화되어 있지는 못하였지만, 앞으로 자체 브랜드육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거나 대규모 사육농가가 증가하여 자체적으로 사료의 품질이나 육질을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자가배합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근래 OEM 사료와 자가배합에 대한 농가의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본란에서 이들 사료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설명해 보기로 하겠다.

2. 일반배합사료·OEM 사료·자가배합사료의 특성 및 장단점 분석

가. 일반배합사료

우선 일반배합사료의 특성을 살펴보면, 사료회사는 양돈농가가 사료의 품질이나 가격 등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2~5수준의 사료를 생산하고 있다. 이것은 대부분의 제조업에서 그러하듯 다품종 소량 생산체계로 실수요자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료가 어떠한 양돈장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것은 아니고, 영양수준, 가격, 그리고 어떠한 특수성(예를 들면, 질병의 예방강화)을 위해 설계된 것이다.

농가에서 일반사료의 선택은 참으로 어렵다. 가격과 품질이 사료선택의 기준이겠지만, 이젠 그 회사의 경영철학, 기술진의 역량, 농가 기술지도 능력 같은 것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좋은 사료가 생산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들이 잘 조화되어야 한다. 우수한 기술진이 포진해 있는 회사라 하더라도 경영

<일반배합사료>

일반배합사료의 특성을 살펴보면, 사료회사는 양돈농가가 사료의 품질이나 가격 등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2~5수준의 사료를 생산하고 있다. 이것은 대부분의 제조업에서 그러하듯 다품종 소량 생산체계로 실수요자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료가 어떠한 양돈장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것은 아니고, 영양수준, 가격, 그리고 어떠한 특수성(예를 들면, 질병의 예방강화)을 위해 설계된 것이다.

진이 수익에 너무 집착하는 회사라면 품질수준이 떨어지거나 가격이 너무 비쌀 수 있다. 사료를 공급하고 농장에 문제가 생겨도 해법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회사라면 농가에 도움이 안되는 회사이니 사료선택 기준에서 벗어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일반사료는 OEM 사료나 자가배합사료를 제치고 여전히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가격에서 다소 비싸더라도 품질이나 서비스에서 신뢰를 구축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축산업 발전을 위해 그동안 배합사료업체가 공헌한 바가 크다는 것은 이러한 맥락이다.

나. OEM 사료

OEM 사료는 사료공장을 가지지 않은 사업주체가 사료공장에 배합비율을 제시하여 생산 의뢰 후 고객에게 공급하는 형태로서, 일단 공장 투자비가 없어서 경제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실제로 사료공장에서 사료제조에 소요되는 직접비용(노무비와 제조경비)은 사료회사, 투자내용, 생산량 등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사료 kg당 30~40원(경기지역 축협공장 기준)정도이다.

그런데 근래 OEM 사료의 생산은 사료 kg당 18~25원 정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 일단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관리비, 영업비 등을 포함하면 일반 배합사료에 비해 매우 값싸게 공급할 수 있다.

그러나 OEM 사료는 자칫하면 품질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사료공장에서 사료배합을 할 때는 입고되는 원료의 성분을 수시로 분석하여 표준치에서 벗어날 경우 보정을 해주는데, OEM 사료

<OEM 사료>

OEM 사료는 사료공장을 가지지 않은 사업주체가 사료공장에 배합비율을 제시하여 생산의뢰 후 고객에게 공급하는 형태로서, 일단 공장 투자비가 없어서 경제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그리고 생산전반에 걸쳐서 생산공장의 관행에 따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OEM 사료는 그 공장 자체사료에 비해 생산과정에서 품질관리가 소홀할 수 있다.

는 그런 작업을 소홀히 할 수 있다. OEM 주체는 그래서 원료의 성분변이가 비교적 적은 옥수수-대두박 위주의 사료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수시로 성분함량을 조절해 주지 않으면 사료품질의 변이는 생기게 된다.

또한 생산전반에 걸쳐서 생산공장의 관행에 따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OEM 사료는 그 공장 자체사료에 비해 생산과정에서 품질관리가 소홀할 수 있다.

OEM 주체가 직접 품질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특별한 계약을 하여 OEM 사료도 문제가 발생하면 생산공장에서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는 체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품질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전가 양상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있는 일이다.

OEM 사료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사료 품질 모니터링, 농가기술지도 체계구축 등 조직화할 필요가 있다.

어떤 특정인이 사료배합 기술만 가지고 안면있는 농가에 가격을 약간 싸게 해서 공급하는 그런 일은 사료산업 발전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생산만 하는 공장이 있고, 조화된 유통조직으로 상당히 많은 양의 사료를 취급하는 사업주체가 있다. 우리나라도 그런 시대가 도래하였지만, 그 기반은 너무나 약하다.

다. 자가배합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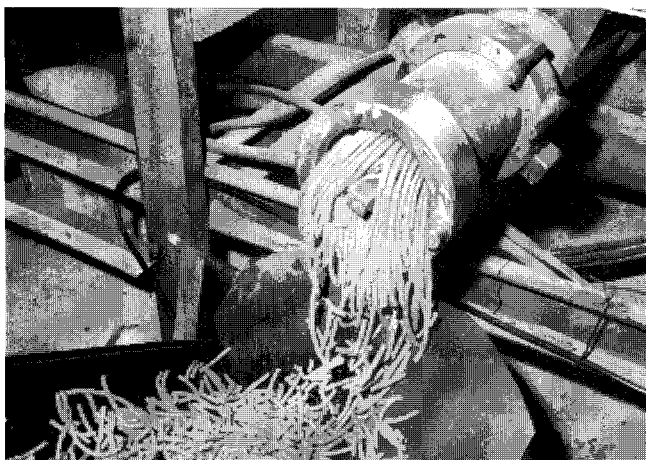
이론적으로는 자가배합사료가 품질측면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사료이다. 왜냐하면 특정 농장에서 자가배합사료를 생산할 경우 돈군의 유전적 능력이나 사육환경을 고려하여 그 농장에 적절한 사료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모델링(modelling) 기법이라 할 수 있다.

돼지의 영양소 요구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품종(유전적 능력) 이외에도 사육환경에 따른 변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을 적절히 분석하여 자가배합사료를 생산한다면 좋은 사료가 될 수 있다.

자가배합사료가 품질측면에서 가장 좋을 수 있다는 점은 원료를 구입할 때 품질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 배합사료 공장에서는 많은 양의 원료를 구입하므로 수입물량이 많은데 비해, 만약 소량의 자가배합사료를 생산한다면

<자가배합사료>

이론적으로는 자가배합사료가 품질측면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사료이다. 왜냐하면 특정 농장에서 자가배합사료를 생산할 경우 돈군의 유전적 능력이나 사육환경을 고려하여 그 농장에 적절한 사료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가배합사료를 생산할 때 원료구입, 품질관리 및 생산관리측면에서 약간의 어려운 점은 있으나 이런 사항은 주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다.



곡물(옥수수 등)외의 다른 원료 즉, 대두박이나 소맥피 같은 것은 국내산으로 사용하면 품질은 확실하다.

자가배합사료를 생산할 때 원료구입, 품질관리 및 생산관리측면에서 약간의 어려운 점은 있으나 이런 사항은 주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다. 필자도 몇몇 자가배합사료 공장에 기술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큰 문제는 없지만 이들은 사료 생산이나 품질문제가 대수롭지 않은 듯 생각할때가 있어 답답하다.

그렇다면 사료회사에서는 왜 많은 전문인력이 근무하고 있겠는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자가배합하는 농가에서 사료배합비 작성 원리를 잘 모르면서도 임의로 수정배합하는 경우를 보았다.

우선은 잘 먹고 외관상 돼지가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2~3개월 지나면 성장부진 등 문제점이 도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전문가의 지시대로 사료를 생산하는 것이 옳다.

3. 맺는 말

이상에서 일반배합사료, OEM 사료 및 자가배합사료의 성격/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나름대로 특성이 있긴 하나 농가의 입장에서는 이들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일반사료회사와 더불어 OEM 사료 사업주체도 이제 우리나라의 사료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자가배합사료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는데, 돼지가 1만두 이상이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원료구입도 별로 어렵지 않고, 사료 생산기술은 사료회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료는 양돈에서 하나의 자재에 불과하다. 결국 양돈업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지니려면 양돈농가가 우뚝서야 한다. 일반사료회사든, OEM 사료든 사료업계는 농가가 경쟁력을 지니도록 가격, 품질, 서비스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고, 정부도 농가가 경쟁력을 지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돼지키울 농가가 없으면 사료회사도 필요 없기 때문이다. **양돈**